



**예거 르쿨트르의 새로운 타임피스,
리베르소 트리뷰트 듀오페이스 투르비옹 핑크 골드**

혁신적인 플라잉 투르비옹의 매혹적인 아름다움과

듀얼 타임존 디스플레이의 실용성을 결합한 모델

- 매우 정교하고 혁신적인 울트라 썬 무브먼트
- 앞면과 뒷면 다이얼 모두에서 볼 수 있는 독창적인 플라잉 투르비옹과 뒷면 다이얼의 세컨드 타임존
- 매뉴팩처의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에서 수작업으로 정교하게 장식한 모델

그랑 메종은 30년 전에 선보인 최초의 투르비옹 손목시계인 리베르소 투르비옹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핑크 골드 소재의 리베르소 트리뷰트 듀오페이스 투르비옹을 선보입니다. 2018년에 출시된 칼리버 847을 눈부시게 재현한 이 모델은 투르비옹에 대한 매뉴팩처의 뛰어난 전문성을 조명합니다. 듀오페이스 콘셉트의 디자인으로 두 개의 다이얼은 각기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며, 뒷면 다이얼에는 세컨드 타임존과 낮/밤 인디케이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계승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타임피스

리베르소는 1931년에 출시된 이후 60년 동안 추가적인 컴플리케이션 없이 단순히 시간을 확인하는 기능만 갖추고 있었습니다. 리베르소 탄생 60주년이 되는 해인 1990년부터 쿼츠파동 이후 기계식 워치메이킹에 대한 열망이 되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예거 르쿨트르는 특별한 리베르소 모델 시리즈를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간의 황금기'라 일컫는 이 기간 동안 출시된 각 타임피스에는 클래식 컴플리케이션이 탑재되었습니다.



1993년, 예거 르쿨트르는 1946년에 포켓 워치용으로 개발된 최초의 투르비옹 무브먼트인 칼리버 170의 유산을 계승하여 리베르소 투르비옹을 출시했습니다. 이는 매뉴팩처 최초의 투르비옹 손목시계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직사각형 케이스에 맞추어 특별히 디자인된 형태의 무브먼트를 처음으로 장착한 모델이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밸런스 스프링을 포함한 다축 투르비옹 개발을 기점으로 투르비옹에 대한 매뉴팩처의 전문성은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시계 무브먼트에 대한 중력의 영향을 상쇄하여 시간 측정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레귤레이팅 노하우는 2009년 예거 르쿨트르 워치가 국제 크로노메트리 대회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하며 입증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랑 메종의 전문성은 새로운 구성의 시리즈 개발을 통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 모델로는 칼리버 847이 있습니다.

플라잉 투르비옹과 듀오페이스 컴플리케이션을 결합한 울트라 썬 핸드 와인딩 무브먼트는 254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께는 3.9mm에 불과합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워치메이커는 두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투르비옹 메커니즘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야 했습니다. 밸런스 휠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상부 브릿지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외부 투르비옹 케이스를 볼 베어링 시스템으로 교체했으며 밸런스 휠을 투르비옹 중앙에 부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헤어스프링은 외부 투르비옹 케이스에 부착되는데 그러한 케이스를 없앴기에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독특한 S자형 밸런스 스프링을 발명하고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한쪽 끝은 투르비옹 메커니즘 중앙의 고정 지점에 부착되고 다른 쪽 끝은 밸런스 휠에 고정되었습니다. S자 모양은 스프링의 코일이 서로 닿는 것을 방지하고, 스프링이 투르비옹과 완벽한 동심원 형태가 되도록 하여 정확도에 필수적인 요소를 갖추었습니다.

매우 정교한 투르비옹은 62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게는 0.455g에 불과합니다. 이는 레귤레이팅 메커니즘에 대한 그랑 메종의 노하우와 헤어스프링을 자체적으로 개발 및 생산하는 몇 안 되는 매뉴팩처 중 하나라는 예거 르쿨트르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1994년에 출시된 후 리베르소 컬렉션의 핵심이 된 듀오페이스 콘셉트는 듀얼 타임존 컴플리케이션을 독특하게 표현하여 앞면 다이얼에는 현지 시간을, 뒷면 다이얼에는 홈 타임을 표시합니다. 무브먼트는



두 다이얼에 장착된 두 쌍의 핸즈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켜야지만 각 다이얼의 핸즈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정확한 시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은 크라운을 통해 제어되며 이는 시계 작동을 간편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케이스 디자인에 통일성을 더해줍니다.

두 개의 다이얼, 두 개의 디자인, 두 개의 타임존

리베르소 트리뷰트 듀오페이스 투르비옹은 손목 위에서 우아한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1930년대 초기 리베르소 모델의 정신을 담아낸 리베르소 트리뷰트 다이얼의 간결한 디자인과 시그니처 디테일은 세련미를 자아냅니다. 각면 처리된 아워 인덱스는 도피네 핸즈와 조화를 이루며 슈망 드 페르(chemin-de-fer) 미닛 트랙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렇듯 절제된 디테일은 섬세하게 선레이 브러싱 처리된 앞면 다이얼의 은은한 광채와 더불어 투르비옹을 강조해 줍니다. 투르비옹의 회전하는 움직임은 시선을 사로잡으며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구조를 지나 케이스 뒷면까지 그 시선이 이어집니다. 케이스를 회전하면 미리 폴리싱 디스크를 중심으로 드라마틱한 선레이 패턴이 광채를 발산하는 크래들이 드러납니다. 디스크는 투르비옹과 정확하게 정렬되어 섬세한 메커니즘을 통해 빛을 반사합니다.

뒷면 다이얼은 매뉴팩처의 메티에 라르® 워크숍에서 수작업으로 세공한 브릿지 앵글을 포함하여 부분 스켈레톤 기법과 화려한 장식으로 더욱 대담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세컨드 타임존은 블랙 선레이 브러싱 다이얼의 골드 핸즈와 인덱스로 표시되며, 다이얼 우측 상단의 낮/밤 인디케이터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표현합니다. 1993년 리베르소 투르비옹을 연상시키는 골드 브릿지는 클루 드 파리 기요세 장식의 텍스처가 돋보이며 블루 스크루는 골드 컬러와 풍부한 대비를 선보입니다. 브릿지의 기요세 디테일은 고도로 숙련된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100년 된 수동 래쉬 기계를 사용하여 6시간의 정교한 작업을 걸쳐 완성됩니다.

시대를 초월한 모던함과 간결함

리베르소 트리뷰트 듀오페이스 투르비옹은 정교한 무브먼트를 탑재하였음에도 케이스의 두께는 9.15mm에 불과하며 이는 세련된 디자인과 편안함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또한, 깔끔한 아르데코 라인과



강렬한 기하학적 실루엣은 케이스에 심플한 매력을 더해줍니다. 사실상 워치메이킹에 있어 가장 정교하고 복잡한 케이스 중 하나로 특허를 받은 케이스를 크래들에 연결하는 슬라이드 및 회전 메커니즘을 포함한 50 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직사각형 케이스를 갖춘 리베르소는 20 세기 디자인의 아이콘이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계 중 하나입니다. 케이스의 조화로운 비율은 황금비율을 기반으로 한 오리지널 디자인에 충실하며, 90 년 전 리베르소가 처음 드로잉 보드를 떠났을 때와 같이 오늘날에도 매혹적인 컴플리케이션을 돋보이게 해주는 모던한 매력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상세 정보

리베르소 트리뷰트 듀오페이스 투르비옹

케이스: 핑크 골드 750/1000(18 캐럿)

크기: 45.5 X 27.4mm, 두께 9.15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47

기능: 시, 분, 세컨드 타임존, 낮/밤, 투르비옹

파워 리저브: 38 시간

전면 다이얼: 실버 선레이 브러싱

후면 다이얼: 블랙 선레이 브러싱

방수: 30m

스트랩: 블랙 앨리게이터 가죽

제품 번호: Q392242J

황금 비율 소개

예거 르쿨트르는 아르데코 스타일이 한창인 1931 년, 황금비율에 기반하여 리베르소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미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비율로 알려진 황금비율은 그리스 글자 ϕ (파이)로 표현되거나



1.618 로 정의되는 신비로운 숫자입니다. 워치메이킹 분야에서 예거 르쿨트르의 리베르소는 황금비율을 잘 보여주는 타임피스입니다. 이후 9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리베르소의 케이스는 다양한 형태로 재해석되었지만, 오리지널 디자인의 비율만은 컬렉션을 정의하는 상징으로 남아 오늘날까지도 '리베르소 = 황금비율'이라는 공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aeger-lecoultre.com